



**제물포 사진대전 대상** 사진가 선암스님이 제18회 전국 제물포 사진대전에서 '정대불사' (사진)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선암사 경관 정대불사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경관을 머리에 이고, 환희함에 가득찬 불자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 뒤 줄지어 선 행렬의 모습을 원경으로 담았다. 시상식은 11월 4일 오후 3시 인천시 종합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은자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후, 달라 이 라마의 방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어린시절과 인도로 망명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쿤둔'이 11월 18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된다.

전시



◇최씨의 사진에는 스리랑카의 혼이 숨 쉬고 있다.

스리랑카 사진순례

최영운 첫 개인전, 25일까지

올해 68세의 할머니 불자 최영운씨(인천여성문화사건회 부회장), 6년간 취미로 시작한 사진에 빠져, 그동안 스리랑카 곳곳을 순례하며 남다른 노력과 정열로 담은 사진들을 모아 첫 개인전 '찬란하게 빛나는 섬 스리랑카'를 25일까지 인천여성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갖는다. 최씨는 이번 전시에서 스리랑카의 자연과 생활, 불교 전통을 담은 총5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화향이 가득한 사람들의 표정, 정겨운 스리랑카 농가의 모습 등에서 우리의 60년대 모습을 보는 듯하다"는 최씨는 "이봄 모를 새와 꽃, 골짜기 깔쳐진 새벽녘 운해, 투명하게 길었던 푸른 하늘, 부처님께 드리는 간절한 염원들을 담은 분들과 오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에 담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는 11월4일~17일 강화 청송에리에서도 전시회를 연다. (032)937-2500



◇문화재기능인협회 회원 전연호씨의 나한도.

과연 장인의 숨겨...

문화재기능인 작품전, 11월2일까지

대목장 석장 탕화장 등 30여년 간 문화재를 수리해온 문화재 수리기능보유자들, 얼핏 이들은 문화재 보존 수리만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는 창작을 통한 작품 활동도 활발히 한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문화재청 후원으로 서울역 문화관 전시실에서 제5회 문화재기능인 작품전을 개최한다.

신용수 대목장, 전홍수 대목장, 박찬수 목조각장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걸어온 1백20여 명 장인들의 솜씨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신용수 회장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문화상품을 개발,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672-8803

평화와 자유로의 갈망

2001년 불교달력 나왔다

디자인 '산뜻'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안방을 지키고 있는 게 있다. 바로 달력이다.

내년도 새해 달력이 출시되고 있다. 불기 2544년(2001년) 신사(辛巳)년 불교달력은 여전히 전통 소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한결 세련된 디자인과 작품성 있는 사진과 그림을 사용하는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들로 인해 예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가야기획은 '산사의 마음', '부처님의 성지' 등 20종의 달력을 새로 내놓았다. 연꽃이나 달마도, 탑 등 전통적인 소재를 쓰면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산사의 계절별 모습에 동자승 캐릭터를 합성한 달력과 불교달력에선 보기 드문 아스테지틀 입힌 직사각형 모양의 달력들이 눈에 띈다. (02)732-2161

감로기획이 내놓은 달력은 14종이다. '동자승의 세계'를 비롯해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자연스님의 불교 꽃꽂이 작품들'을 담은 '산사의 꽃향기' 등이다. (02)723-4306

불교문화사부부는 새해 달력으로 2종류를 선보였다. '천년의 빛'은 사진가 박보하 씨가 찍은 사찰 사진을 담았고, '날마다 좋은 날'은 일장스님의 선묵화를 소개하고 있다. (02)420-3200

조계종총무원부는 석공스님의 사진집 '반경'과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구도' 등 4종류의 달력을 새로 내놓았다. (02)733-6390 권형진 기자

'택시 드라이버' '순수의 시대' 등의 영화를 통해 작가주의 영화감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돼 온 마틴 스콜시즈. 그는 희망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 희망이 바로 평화와 자유, 인권에 관한 문제라면...  
올해 초부터 국내외를 달구고 있는 달라 이 라마의 방한 여부를 앞둔 시점에서, 제14대 달라 이 라마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영화 '쿤둔'이 오는 11월 18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후, 주요 종교의 성직자들이 정부의 달라 이 라마 방한허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며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개봉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쿤둔'은 티베트어로 '고귀한 존재'란 뜻이다. 영화 '쿤둔'에서 마틴 스콜시즈 감독은 자연에 순응하며 과거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가는 순수한 티베트인들의 삶을, 어린 달라 이 라마의 시절에서 그려내고 있다. 달라 이 라마가 2살 때부터 18세 중국의 탄압을 피해 인도로 망명하기까지의 삶이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듯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러다 보니 자유와 평화, 인권에 대한 달라 이 라마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접하고

티베트불교 다룬 영화 '쿤둔'

달라 이 라마 이야기 '관심' 순수의 세계 담은 영상 '황홀' 신비주의적 불교접근 '취약'

자 하는 관객에게는 다소 실망을 안겨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생 처음 카메라 앞에선 어린아이와 아이추어 연기자들이 펼쳐내는 순수의 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 펼쳐지는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쿤둔'은 제작당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된 티베트 불교 열풍으로 각국의 관심을 불러모았으나, 중국 정부의 방해로 인해 아시아권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비디오 상영도 불가능했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인권영화제에서 잠시 선을 보인 것이 전부다.

이 영화는, 티베트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 살아있는 부처, 즉 달라 이 라마를 중심으로 하면

서도 감독은 물론 번역자조차 불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 '비구와 비구니'를 '승려와 비구니'로 표현한 것 정도는 사소한 실수로 넘길 수도 있었으나, 티베트의 현실에 대해서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다분히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한 점이나, 신적 존재로서의 '달라 이 라마'를 신과 동일시한 점은 서구인이 본 불교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쿤둔'은 불교의 가르침을 티베트 전통 장례의식과 만다라 등을 통해 탁월한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영화다. 또 영화 속에서 만나는 티베트의 전통의식과 생활, 달라 이 라마에 대한 한결같은 티베트인들의 믿음과 희망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하다.

'죽력은 절대 정당해질 수 없다. 선·악 모든 일엔 인과가 있는 법. 다만 선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중국과 티베트의 정면 한 가운데 위태롭게 선 18세의 달라 이 라마가 문지기에게 한 이 말은 어쩌면 마틴 스콜시즈 감독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희망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nia.com)

화합의 문화 향연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24-31일, 예술의 전당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우리나라 대표 종교들이 종교간 예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화합을 구현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1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를 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번 종교예술제는 24일~31일까지 예술의 전당과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다.

예술의 전당 제4.5전시실

에 열리는 미술제에는 김대일, 송영방, 하수경, 이만익 등 원로종교문화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회화 조각 서예 공예 등의 분야 총 149점이 전시된다.

영화제는 25일~28일까지 예술의 전당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다. 25일 북한영화 '안중근', 26일 티베트영화 '쿤', 27일 방화 '내 마음의 풍경', 28일 영화 '마태복음' 등이 오후 3시와 7시 하루 2회 상영된다. 또 3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21세기 계승시대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학술제가 열린다. 박이문교수(포항공대 과학철학과), 김용정교수(동국대 철학과), 황경식교수(서울대 철학과)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승과 인간 존재와 종교가 추구하는 윤리적 문제' '계승연구의 문제점과 종교인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제에서는 기쁨비가합창단, 원운합창단, 가톨릭합창단, 홀리크로스합창단 등 250여명의 연합합창단이 출연해 수준 높은 무대를 꾸몄다. (02)3704-9340 이은자 기자

마하몰 신상품 및 추천상품 www.mahamall.co.kr  
주선전화 :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MAHAMALL

108나한단주



- 신축승아미불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입수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18알×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 재질 : 복숭아씨

설악 상황버섯



● 상황버섯이란?  
오래된 풍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풍나무 버섯으로 설악 상황버섯은 기존의 여러 농가에서 종잡으로 채취한 버섯과 달리 건강에 좋은 현이에 배양 재배하므로 버섯의 자실층과 근사체 전부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상품 효능 / 효과
- 1. 항암효과 - 면역항체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 2. 예방작용 - 초기암의 증식방지 효과. 특히 수술후 재발방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 3. 항염작용 - 고혈압에 대한 심장연계 효과가 탁월합니다
- 4. 상습흡연 - 화학요법제 투여나 방사선요법과 병행하면 이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 5. 인장성 - 기존의 합성치료제와는 달리 탈모증,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전혀 없으므로 장기복용에도 절대 안전합니다

• 내용량 : 340g (170g × 2개입) • 원산지 : 강원도 속초  
• 원료명 : 현미상황 100% (국산)  
• 가격 : 135,000원

설악 동충하초 환



● 동충하초환?  
동충하초균이 겨울에는 곤충의 몸 속에서 자생하다가 여름에는 풀처럼 피어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를 귀한 약재로 다룬 나라는 중국이며 중국에서는 이를 인삼, 녹용과 함께 보세 약재로 취급하면서 마치 불로 장생의약약처럼 여겼습니다.

- 상품 효능 / 효과
- 1. 호흡계 작용 - 여러가지 악호흡에 호흡기 계통의 병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 2. 면역력 증가 - '코다세린'이라는 항생물질과 디펩티드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증강, 미약해독, 병해충방제에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 3. 스테이민 증강 - 노화방지과 항피로 작용이 있어서 고된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인내나 절망이 같은 힘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 내용량 : 설악동충하초 환 130g (65g × 2개입)  
• 성분 : 동충하초 90%, 국산 참깨 10%  
• 섭취방법 : 1일 3회 식후 10~20알  
• 가격 : 49,500원

포온열 건강벨트



● 상품설명  
포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몸질, 취침, 기능을 킷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절(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취침, 몸질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3. 휴대가 간편하며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특히 이란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요 약효 : 신장, 소화불량, 생리통, 여성, 운동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탈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배터리 (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장음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투명꽃 5인 다기세트



● 상품소개  
우아한 빛깔과 극선이 느껴지는 전통다기 세트입니다. 차일을 우려내는 다면, 찻수를 식히는 사발, 속주, 찻물 따라 마시는 찻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격 : 150,000원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 상품소개  
스텐드형 · 규격 : 43×23×28cm · 무게 : 18g · 가격 : 97,000원  
책자형 · 규격 : 69×43×3cm · 무게 : 49g · 가격 : 107,000원